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영문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영문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영문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영문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그 까닭.

요약 연대표

표기

영문

20세기	현재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그 까닭.

🕒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 수록 용례

4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영문'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그 까닭.

☞ 영문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영문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영문 사전 표기 요약	—	—	—	—	—	● →
령문 문헌 수록 표기	—	—	—	—	—	● →
녕문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영문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영문, 령문, 녍문



영문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변화

‘영문’은 20세기부터 ‘영문’, ‘령문’, ‘녕문’으로 나타난다. 이 형태들이 함께 쓰이다가 ‘영문’으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영문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영문, 령문, 녥문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영문, 령문, 녥문

출처 1908 빈상설 35

용례 01

66 문헌 용례

집안 스람이 웬 영문인지 알도 못하고 웅기중기 모여 와서.

현대어 풀이

집안사람이 웬 영문인지 알지도 못하고 웅기중기 모여 와서.

출처 1908 은세계 5

용례 02

66 문헌 용례

머섬의 계집은 윈 영문인지도 모르고 겁에 썩여서 횡랑방 뒤문을 열고 버선발로 뛰여누셔서.

현대어 풀이

머섬의 여자는 윈 영문인지도 모르고 겁에 질려서 횡랑방 뒷문을 열고 버선발로 뛰어 나셔서.

66 문헌 용례

이씨 집안 식구라고 방구석에는 하나토 못 잇고 모다 뒤썰 압썰에 구석구석 셔셔 엇진 령문인지 몰으고 눈들이 휘둥그런데.

㉮ 현대어 풀이

이때 집안 식구라고 방구석에는 하나도 못 있고 모두 뒤뜰 앞뜰에 구석구석 서서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고 눈들이 휘둥그런데.

66 문헌 용례

리 오위장은 본리 심겁흔 사람이라 웬 녕문인지 모르고 사시나무갓치 벌벌 쏘기만 후논디.

㉮ 현대어 풀이

이 오위장은 본래 심겁한 사람이라 웬 영문인지 모르고 사시나무같이 벌벌 떨기만 하는데.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영문에 관한 주석

‘영문’은 동음이의어의 ‘영문(螢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감영의 정문인 ‘영문’은 고관들이 드나들 때 외에는 평소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알 수 없었다. 여기에서 ‘영문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다만 ‘령문’, ‘녕문’ 등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螢門’에서 유래한 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하면, ‘ㄹ’로 시작하는 다른 한자어에서 온 말일 가능성이 있다.



영문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인호 2001 《조선어원편람》 박이정
- 최기호 2009 《최기호 교수와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 문화여행: 아시아편》 박문사
- 조항범 2022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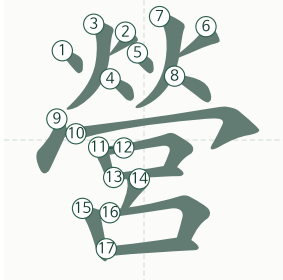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영문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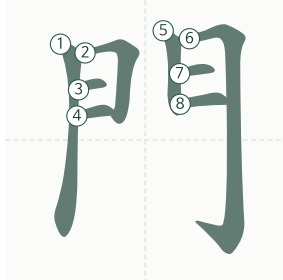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營 뜻·음 경영할 영
총 17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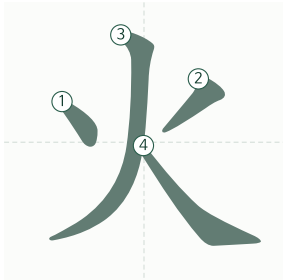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營/

門 뜻·음 문문
총 8획 · 부수 門

hanja.wordrow.kr/한자/門/

火 뜻·음 불화
총 4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火/